

07 2027학년도 정시

재수·반수, 세어 보고 정하십시오

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무엇을 세어 보나	3
03 반수는 또 다릅니다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**내신과 생활기록부는 안 바뀝니다** — 재수는 수능을 다시 보는 선택입니다
- ◆ **세어 볼 세 가지** — 올해가 내 실력이었나 · 갈 수 있는 곳을 아는가 · 1년의 값
- ◆ **반수는 또 다릅니다** — 안전판이 있는 대신 시간이 절반
- ◆ **12월에 정하는 재수와 2월에 정하는 재수는 다릅니다**

01 · 먼저 사실부터

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

「한 해 더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.」

저희는 「오릅니다」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그건 파는 말입니다. 대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표를 놓고 정하시면 됩니다.

무엇	바뀌나	뜻하는 것
수능 점수	바뀝니다	재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
내신	안 바뀝니다	3년치가 그대로 남습니다
생활기록부	안 바뀝니다	졸업하면 닫힙니다
학종 지원	가능하나 불리	3년치가 이미 고정입니다
제도	바뀔 수 있습니다	개편 시기와 겹치는지 보십시오

둘째·셋째 줄이 핵심입니다. 재수는 수능을 다시 보는 선택이지 수시를 다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.

그래서 「수시가 안 됐으니 재수」는 논리가 어긋납니다. 재수해도 수시 조건은 그대로입니다. 재수가 값을 하는 것은 「수능을 더 올릴 수 있다」가 분명할 때뿐입니다.

출처: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. 제도 변경 여부는 그해 발표를 확인하십시오.

02 · 무엇을 세어 보나

판단은 셋으로 갑니다

저희가 상담에서 쓰는 세 가지 물음입니다. 순서대로 답해 보십시오.

Q. 하나 — 올해 수능이 내 실력이었나

평소 모의고사와 견주십시오.

수능이 평소보다 크게 낮았다면 — 아직 안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. 긴장·컨디션·실수라면 **한 해 더 해서 나아질 여지**가 있습니다.

평소와 비슷하게 나왔다면 — 그것이 지금 실력에 가깝습니다. 올리려면 **지금까지와 다른 방식**이 필요한데, **그게 무엇인지 답할 수 있어야** 합니다. 「더 열심히」는 답이 아닙니다.

Q. 둘 —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아는가

이걸 모른 채 정하는 재수가 가장 위험합니다.

앞 편에서 다룬 대로 **환산점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**. 계산해 보지 않고 「**이 점수로는 갈 데가 없다**」고 단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서넛만 계산해 보셔도 그림이 달라집니다. 내 강한 영역을 크게 보는 대학을 찾으면 **생각보다 위쪽이 열려** 있는 일이 있습니다.

계산을 해 보고도 남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들 때, 그때 재수를 이야기하십시오.

Q. 셋 — 1년의 값을 세어 보았는가

비용과 시간만이 아닙니다. **그해에 얻었을 것도** 함께 읽습니다.

대학 1학년, 그 나이의 시간, 그리고 **또래보다 한 해 뒤에 시작하는 것**. 이걸 손해로 볼지 아닐지는 **집집마다 다릅니다**.

그리고 **재수가 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**. 오르는 학생도 있고 그대로인 학생도 있습니다. 「**최소한 지금만큼은 나오겠지**」도 보장이 아닙니다.

그러니 「**안 올랐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**」를 미리 물으십시오. 그 답이 「아니오」면 **지금 갈 수 있는 곳을 다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**.

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. 재수 결과에 대한 통계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— **믿을 만한 공개 자료가 저희에게 없습니다**.

03 · 반수는 또 다릅니다

다니면서 하는 것의 셈

반수는 대학에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. 재수와 **얻는 것도 잃는 것도 다릅니다.**

	재수	반수
안 됐을 때	그해가 빡니다	다니던 학교가 남습니다
공부 시간	온종일	수업과 나눠 씁니다
학적	없습니다	휴학·재학을 정해야 합니다
등록금	—	다니면 한 학기치가 나갑니다

첫째 줄이 반수의 가장 큰 값입니다. 안전판이 있는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라 부담이 다릅니다.

둘째 줄이 가장 큰 대가입니다.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면 **시간이 절반입니다.** 그래서 **많이 올려야 하는 학생에게는 반수가 어렵습니다.**

휴학 시기를 확인하십시오

1학년 1학기에 **휴학이 안 되는 대학**이 있습니다. 그러면 **한 학기는 다녀야 합니다.** 등록금과 시간이 거기서 나갑니다.

그리고 **휴학 기간에 제한이 있는 대학**도 있습니다. **반수를 생각하신다면 입학 전에 학칙을 확인해** 두십시오.

그리고 정시만 남습니다

재수와 마찬가지로 **수시 조건은 그대로**입니다. 게다가 반수는 **준비 시간이 적어** 논술을 넣기도 어렵습니다. **사실상 정시 한 갈래로** 좁아진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.

출처: 대학 학칙 일반. **휴학 규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.** 반드시 해당 대학 학칙을 확인하십시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정하는 차례와 점검표

차례	무엇을	언제
1	지금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셉니다	성적표 받은 뒤
2	정시 세 장을 제대로 씁니다	12~1월
3	2월 추가모집까지 봅니다	2월
4	그래도 아니면 그때 정합니다	2~3월

1~3을 건너뛰고 4로 가지 마십시오. 12월에 정하는 재수와 2월에 정하는 재수는 다릅니다. 12월에는 아직 정시 결과도 추가모집도 안 나왔습니다.

그리고 정시를 대충 쓰고 재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. 세 장을 제대로 쓰고 나서 결과를 보고 정하십시오.

재수·반수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올해 수능이 평소보다 낮았는가
- ☐ 낮았다면 까닭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가
- ☐ 올리려면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답할 수 있는가
- ☐ 지금 갈 수 있는 곳 을 계산해 보았는가
- ☐ 정시 세 장을 제대로 썼는가
- ☐ 2월 추가모집 까지 보았는가
- ☐ 안 올랐을 때 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
- ☐ 반수라면 휴학 규정 을 확인했는가

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. 「더 열심히 하겠다」는 답이 아닙니다. 올해 안 된 까닭을 알고,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가 있어야 한 해가 값을 합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재수를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. 학원은 재수생을 받으면 한 해를 더 가르칩니다 — 권할 이유가 뚜렷합니다.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립니다.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보시고, 그래도 아니라면 그때 오십시오. 세어 보지 않고 시작하는 재수가 가장 많이 후회로 끝납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재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재수하면 학종은 아예 못 쓰나요?

쓸 수는 있습니다. 다만 불리합니다.

학종은 3년치 생활기록부를 읽는데, 졸업생은 그것이 이미 담혀 있습니다. 재수 기간에 무엇을 해도 생활기록부에는 안 들어갑니다.

그리고 대학에 따라 졸업생을 안 받는 학종이 있습니다. 요강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.

그래서 재수생은 수능 비중이 큰 자리로 갑니다 — 정시, 그리고 최저가 높은 교과·논술입니다. 수시 36,272명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를 걸고 있으니 수능이 오르면 그쪽도 함께 열립니다.

「재수=정시」만은 아닙니다. 다만 학종은 접고 계산하시는 편이 맞습니다.

Q. 제도가 바뀐다는데 재수해도 되나요?

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자리입니다.

대입 제도가 바뀌는 해에는 재수생이 새 제도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준비하던 것과 시험 범위나 과목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그러니 「내가 재수하면 어느 제도로 보는가」를 먼저 확인하십시오. 교육부 발표와 평가원 시행계획에 나옵니다.

제도가 바뀌는 첫해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. 기출이 없고 난이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재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

저희 자료 가운데 제도 변화를 다루는 편이 따로 있습니다. 재수를 생각하신다면 그것부터 읽어 보십시오.

한 줄로 남기면

재수는 수능을 다시 보는 선택이지 수시를 다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. 지금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본 뒤에 정하십시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제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. 재수 결과에 대한 통계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— 믿을 만한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.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, 이 자료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.